

중년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건강과의 관계연구

간 호 과 심 미 정
전임강사

I. 서 론

대부분 중년기가 되면 남녀모두 호르몬의 변화가 오며, 자아의식의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는 지나온 생애를 회상하며, 앞으로 남은 여생을 생각할때 초조하고 불안해지며 우울해진다. 이시기는 다른 어떤때보다도 정신적, 신체적, 생리적변화로 인해 적응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심한 질병에 걸리기쉽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장한 자녀들이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며, 자기능력에 맞는 여가활동을 발전시키고,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경제적수준을 확립하는 것이다.¹⁾

그러나, 가족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이 가지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성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합할만한 변수가 모호하지만 가정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구성원은 부부이다.

배우자와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지낸 부부는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했으며, 그들의 직장, 삶에 더 만족했으며, 더 적은 정신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했다. 반면에 부부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서로의 도움에 덜 만족했으며, 건강측정과 중요하게 관계되었다.²⁾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명확하고 솔직한 의사소통과 건전한 부부관계, 가족원의 건전한 인성발달등이 포함된다.³⁾ 본 저자는 부부의 조화정도가 가족이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결혼만족도와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적 환경은 개인이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활력적인 자원을 제공해주고 건강상태를 유지시키는 반면에 신경증과 그러한 요인들이 죽음에 이르게하는 부정적 건강결과를 포함한다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있다.²⁾

전통적인 관념의 사회학자들은 가족을 부부와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라고 정의했으며, 건강과학의 입장에서는 건강이 형성되고 유통되며, 건강관리가 조직되고

건강활동이 수행되는 하나의 개별적이고 일차적인 간호체계라 본다.⁴⁾ 따라서 가정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인데 이러한 가정환경의 핵심구성원은 부부이다. 서로 잘 조화가 되는 남녀가 모인 부부인가, 아닌가에 따라 가정환경이 영향을 받는다.⁵⁾

부부란 반대되는 두성이 한쌍을 이루어 발전시켜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긴장은 언제나 수반되는 것이다. 이 긴장에 대한 계속적인 적응이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결혼의 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⁶⁾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관계는 서로에게 정신적 긴장을 지지할수 있도록 만들며, 여기에 잠재적 능력개발에 기여한다. 조(1986)⁷⁾의 연구결과에서 결혼요인중 부부의 만족도는 건강문제 발생정도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라는 개념을 고찰했다.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 하겠다.⁸⁾ 학자에 따라 결혼만족도 측정요인으로 애정문제, 성, 자녀양육, 종교, 사회활동, 역할등으로 분류했다. 본연구에서는 중년부인의 결혼생활의 내면적 구조를 결혼관계, 생활수준, 직업, 자녀와의 관계, 여가시간과 사회참여, 자아개념, 건강등의 7개요인으로 본 Hay.M.P와 Stinnett N(1971)⁹⁾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정도, 연령, 결혼년수, 자녀수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수입이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다고 나타내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관계된 각 개인의 기대수준에 따라 만족수준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할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경제적 안정은 경제적 곤란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관계가 된다.¹⁰⁾

교육수준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행복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 만족도가 정비례로 상승하며, 부인의 문제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고 부부간 일치도가 높아져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¹¹⁾

이(1979)¹²⁾는 40대 부인들은 갱년기현상 및 남편과 자녀의 가정외적 활동의 증가로 인해 소외감이 겹치고 고독과 불안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다고 했다.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자에 따라 결혼기간이 만족도를 감소시키지않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¹³⁾

자녀는 결혼의 성공적인 기회를 감소시키며 결혼만족도와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는 부모의 만족과 기쁨인 동시에 부부상호관계의 결속을 도모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¹⁴⁾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관계는 아직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많은 외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내적요인으로는 부부관계에 더 많은 자기노출, 상호신뢰, 확실한 도움행위의 인식과 실행, 배우자를 도울수있는 능력에 대한 높은 확신은 두사람 사이에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갖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Ⅲ. 연구방법

1. 도구

A) 결혼만족도 검사 (Marital Satisfaction Scale).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중년부인의 결혼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Hayes M. 와 Stinett N.의 중년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사용한 중년부부의 결혼만족도 검사 (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 Scale)의 항목을 사용했다. 이 도구는 결혼만족도를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수준, 직업, 자녀양육, 여가시간 및 사회참여, 자아개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할수 있도록 되었으며, 이러한 7가지 Subscales에는 각각 5개문항이 포함된 전체 35개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Type Scale로서 5점척도로 되었다.

B) 건강조사표

건강정도의 측정은 57문항의 C.M. I. 간이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문항마다 예와 아니오의 응답중 택일하게 되어있는데 예일 경우는 해당항목의 증상이 있다고 보고 예하나에 1점씩 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87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남지방에 거주하고있는 만 40 ~ 60세 사이의 중년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동거하는 부인으로 설문지조사법을 통해 임의 추출된 총 112명을 직접, 간접면접하여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 ①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다.
- ②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 ③ 결혼 만족도와 건강상태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제상태, 자녀수, 가족형태, 종교유무, 거주지역등이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연령 대부분은 40 ~ 50대로 87명 (77.7%)이였으며, 배우자는 40 ~ 50대가 58명 (51.8%), 51 ~ 60대가 51명 (45.5%)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중졸

이 43명 (38.4%), 고졸이 34명 (30.4%) 순이었으며, 배우자는 고졸이 49명 (43.8%), 대졸이 40명 (35.7%), 순으로 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88명 (78.6%), 이 가정주부였고, 배우자직업은 회사원, 공무원이 38명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정도가 80명 (71.4%) 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수는 4~6명이 63명 (56.3%), 3명 이하는 47명 (42.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21~30년이 61명 (54.5%), 11~20년이 37명 (33.0%) 31년 이상이 (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 나이차는 0~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인 수(명)	비 율 (%)
본인 연령(세)		
40~50	87	77.7
51~60	21	18.8
무응답	4	3.6
배우자 연령(세)		
40~50	58	51.8
51~60	51	45.5
61이상	3	2.7
본인 교육정도		
국 졸	25	22.3
중 졸	43	38.4
고 졸	34	30.4
대 졸	9	8.0
무응답	1	0.9
배우자 교육정도		
국 졸	5	4.5
중 졸	17	15.2
고 졸	49	43.8
대 졸	40	35.7
무응답	1	0.9
본인 직업		
무	88	78.6
유	23	20.5
무응답	1	0.9
배우자 직업		
교사	18	16.1
전문직	8	7.1
회사원, 공무원	38	33.9
상업	17	15.2
기타	29	25.9
무직	2	1.8

일반적 특성	인수 (명)	비율 (%)
경제상태		
상	13	11.6
중	80	71.4
하	18	16.1
무응답	1	0.9
자녀수(명)		
3명이하	47	42.0
4~6명	63	56.3
7~9명	2	1.8
결혼기간(년)		
10이하	1	0.9
11~20	37	33.0
21~30	61	54.5
31이상	13	11.6
배우자와 나이차(세)		
0~5	86	76.8
6~10	23	20.5
무응답	3	2.7
가족형태		
핵가족	89	79.5
대가족	20	17.9
무응답	3	2.7
종교유무		
유	50	44.6
무	61	54.5
무응답	1	0.9
거주지역		
도시	95	84.8
시골	16	14.3
무응답	1	0.9
총	112	100

세가 86명 (7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89명 (79.5%) 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61명 (54.5%)였고 대부분이 도시지역 거주민 (84.8%)이었다.

2. 일반적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표 2와 같다.

결혼만족도는 본인연령, 본인직업유무, 자녀수, 배우자와의 나이차, 종교유무와는 유의한 차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일반적 특성	인 수	Mn.	S.D.	T-test 또는 F ratio
본인 연령 (세)				
40~50	87	103.98	9.32	-.54
51~60	21	104.95	6.93	
본인 직업 유무				
무	88	104.05	8.92	-.02
유	23	104.09	9.14	
경제 상태 *				
상	13	96.62	10.56	
중	80	105.09	7.75	5.416
하	18	104.44	10.76	
자녀 수				
3명 이하	47	104.64	10.31	
4~6명	63	103.76	7.71	1.278
7~9명	2	94.50	9.19	
결혼 기간 *				
10년 이하	1	81.00	.00	
11~20년	37	104.59	9.25	2.722
21~30년	61	104.44	8.59	
31년 이상	13	101.69	7.79	
배우자와 나이차				
0~5세	86	104.07	8.44	.15
6~10세	23	103.70	11.27	
가족형태 *				
핵가족	89	104.67	7.81	2.56
대가족	20	102.00	12.49	
종교유무				
무	50	103.96	8.91	1.04
유	61	103.89	9.08	

* $P < .05$

이는 없었으나, 경제상태, 결혼기간,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Skanzoni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은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갈등이 불행한 결혼생활과 이혼가능률이 높게 나타났다.¹⁵⁾

결혼만족도와 수입의 관계는 남편의 수입과 사회적 명성이 결혼만족도와 연관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¹⁶⁾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연령 및 결혼횟수는 가족생활주기와도 관련이 있으나 가족생활주기의 명확한 구분에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연구결과에서 대체로 결혼초에 만족도가 높고 첫아이출산후 부터 가족주기초기 단계동안은 감소되었다가 중반기단계 이후부터 떨어지거나 혹은 보다 더 안정된 상태를 보이다가 후반기에 다시 증가한다¹⁷⁾는 것이다. 이는 부부의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교체, 돈벌이, 성관계, 일의 성취도, 자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를 한개인으로서 알수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Palonen(1967)¹⁸⁾는 자녀수가 1~2명인 사람이 3~4명인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자녀수가 3명 이상일때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것과 일치하였다.

핵가족군이 대가족군보다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것은 고부간의 직접적 갈등이나 대가족제도로 인해 초래되는 가족내 문제가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결혼만족도와 건강과의 상관관계

결혼만족도의 하부변인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3 과 같다.

신체적 수소울과 결혼만족도의 하부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건강변인과는 $r = -.30$ 으로 건강에 만족도가 낮은사람은 신체적건강문제를 갖는 낮은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적수소울은 결혼관계와 건강변인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요인중 부부만족도는 건강문제 발생정도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조⁷⁾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표 3〉 결혼만족도와 건강과의 상관관계

결혼만족도 건강수소울	결혼관계	생활수준	직업	자녀와의 관계	여가 및 사회참여	자아개념	건강
신체적 수소울	.09	.05	-.01	-.04	-.06	-.10	-.30*
정신적 수소울	.18*	.10	.06	-.00	-.07	.12	-.16*

*P<.05

V. 결 론

1987년 5월 28일에서 6월 8일까지 전남지방에 거주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동거하는 40-60세의 중년부인들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건강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경제상태, 결혼기간,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P<.05>

2) 결혼만족도와 건강과의 관계에 있어, 신체적 건강수소율은 건강변인만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신적 건강수소율은 결혼관계와 건강변인과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이 평숙, 정신간호학, 신광출판사, 서울, 1986. p.66.
2. Hamilton I. McCubbin, et.al,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1982, pp.223 ~ 224.
3. 김 명자, 부부간의 갈등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4. 김 수지, 김 정인, 가족정신건강, 수문사, 1981, pp.8~10.
5. 김 의숙, 부부의 조화도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간호학논집 제 5집, 1981, pp. 1~11.
6. 최 신덕, 결혼과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p.143.
7. 조 옥순, 일개지역 중년부인의 갱년기 증상호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6.
8. 황 영희,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9. Hay M & Stinett 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 and wife,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1971.
10. 금 혜선, 결혼만족도와 personality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11. Norval D. Glenn and Charles N. Weaver,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Feb. 1981), p.269.
12. 이 동채, 한국의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여성학, 이대출판부, 서울, 1979, p.383.
13. Brent C. Miller, A Multivariate Development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76, pp.643~657.
14. Judson T. Landis and Mary G. Landis, *Reading in Marriage and the family*, Prentice - Hall, New York, 1951.
15. Stephen R. Jorgensen, Socio-Economic Reward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 Re-examin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Nov. 1979, pp.825~826.
16. David B. Brinkerhoff and Lynn K. White, Marital Satisfaction in an Economically Marginal Popu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May 1978, p.260.
17. Graham B. Spanier and Robert A. Lewis,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Feb. 1980, p.100.
18. John R. Hurley and Donna Palonen,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Density among Student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Aug. 1967, pp.483~484.

**A Study on Relation Between Middle-aged Woman's
Marital Satisfaction and Health**

Sim Mi Jung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ty the relation between middle-aged woman's marital satisfaction and health.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2 people of 40~60 years old age women who are live with husband and childre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28 to June 8, 1987 in Chonnam province.

The results of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length of marriage, type of family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arital satisfaction($P<0.05$).
2. Health factor was lower correlation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mplains and marital relation was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health complains.